

南學黨의 活動과 房星七亂

趙 誠 倫*

I. 머리 말

이 글은 189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방성칠난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그것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려는 것이다. 방성칠난은 비슷한 시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임술민란이나 이재수난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모순으로부터 비롯되는 민중의 저항이 조세수취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폭발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조선왕조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왕조의 건설을 꾀했다는 점에서 흔히 제주도 특유의 분리주의적 전통을 보여준다고 평가되어 왔다. 또한 민란의 전 과정을 남학당이라는 종교 집단이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갔다는 사실과 이 민란이 곧이어 1901년에 발생하는 이재수난의 전주곡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관한 올바른 분석은 한말 제주도 역사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성칠난에 대한 연구는 몇몇 글(김봉현, 김종업, 장창일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역사상 존재하였던 제주도 사회구조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주는 기초적인 연구, 곧 고려, 조선시대의 경제구조, 신분구조, 정치행정체제 등의 기본적인 모습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방성칠난을 포함한 일반적인 민란의 분석이 올바르

* 제주도·사회학

분석될 수가 없다. 둘째로 풍부한 사료의 절대 부족이 흔히 지적되는데, 그러면서도 기존에 발굴되어 있는 사료, 특히 金允植의 《續陰晴史》에 대한 좀더 철저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민란의 중심세력인 남학당에 관한 이해 부족이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기존 연구의 세 가지 한계 중 첫번째인 전반적인 연구수준 한계를 인정하고 일단 그러한 한계 안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문제를 가능한 극복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II. 민란의 사회경제적 배경

제주도는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육지부와는 매우 다른 특유의 정치, 경제, 문화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화산도(火山島)로서 시기적으로는 유년기에 속하기 때문에 화산회토양에 자갈과 돌이 많이 섞여 있어 농경에 적합한 토지가 비교적 적으며,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내려 오면서 초지가 넓게 퍼져 있어 농경지보다는 초지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토지가 절대 부족하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아서 경지면적의 전국 평균이 호당 1.04결일 때, 제주도의 경우는 0.69결로서 절반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경지의 대부분이 畠田으로 水田은 아주 일부 지역에만 적게 분포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부족한 농경지를 밭으로 일구어 보리, 조,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목축업 수산업, 기타 특수 작물 재배 등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도움을 얻으며 살아왔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지가 목장토, 궁방전, 각 아문 둔전 등의 공토로 되어 있었고, 민유지는 극히 적었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가 지주가 되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국가의 소작인으로 존재하면서 국가에게 지대(地代)를 지불하는 국가지주제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며, 민유지가 극히 적다는 것은 조선 봉건사회의 지배적 특징인 지주전호제의 논리가 관철될 여지가 적었음을 나

타낸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지주의 존재란 육지부에서 볼 수 있는 대지주가 아닌 중소지주가 일반적인 형태로 되며, 국가권력에 비해 매우 적은 영향력 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出稅實結數가 적기 때문에 전세를 거두어 모두 지방 관아의 경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통한 관아 경비의 충당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해산물과 특수작물을 중심으로한 공물(貢物) 상납 과정에서의 중간 착취와 각종 잡세의 징수를 통해 주로 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국유지(특히 목장초지)의 화전 개간을 관 주도 아래 농민들에게 장려하는 한편, 산간지대의 노는 땅을 부역노동을 동원, 개간하여 둔전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늘려 나갔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 때문에 조선후기 봉건사회의 전반적 해체과정, 곧 상품화폐경제의 발생, 발전으로 계급이 분해되고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던 육지부의 상황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약간의 자작과 대부분의 소작(공토)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지주와 임노동층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 빈농층으로서 수산업, 목축업, 기타 부업을 겸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기타 부업 중에는 조선후기에 특히 涼臺 수공업이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과 토착 지배층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각종 조세를 수취하는 과정에서의 중간 착취를 중요시하게 되며, 조세의 과도한 징수에 항의하는 민란이 바로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계급적 차이가 없이 전 도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특이한 구조를 형성해 왔다. 제주도에서는 특산물의 공납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재정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곧 지방관과 행정 실무 담당자들이 土囊세력과 결탁하여 중앙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채 자의에 의해 통치해 왔음을 의미한다. 공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액을 제주목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실제 징수도 말단수취기구인 툼(郡)에 상관없이 목 단위로 행해져 왔다. 3군은 별다른 권한을 갖지 못한 협조자에 불과했다. 이 점은 육지부 민란이 일반적으로 군 단위로 일어난 것

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주로 목단위로 일어났던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남학의 뿌리와 조직활동

남학은 동학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860년대에 충남, 전북지방에서 시작되었다. 교주는 蓮潭, 李雲圭이지만 교리체계의 확립과 본격적인 포교 및 조직활동은 제자인 金恒(一夫)과 金致寅(光華)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종교는 동학과 마찬가지로 유, 불, 선 3교를 혼합한 것이지만, 각각 일부계와 광화계를 형성하면서 일부계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 선을 흡수하였고, 반면 광화계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 선을 흡수하였다.

기본교리를 보면 남학의 이상은 後天世界 無量樂園의 開闢이다. 後天無量樂園에 참여는 후천개벽의 易理를 인식할 때 가능하다. 후천세계에는 晝夜, 寒暑의 차이가 없게 되며, 인간도 貧富·貴賤·壽夭의 차이가 없게 된다. 남녀관계도 평등해진다. 이때에는 사람들도 800세 장수할 수 있으며 죄와 고통이 없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후천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곧 先後天이 교역하는 시기가 되면 3災 8難이 있게 되며, 인간의 선악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는데, 이 후천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닦아야 할 正道가 바로 남학이 열어준 無極大道라는 것이다.

一夫系에서는 주로 오음영가와 무도를 수련의 기본법으로 삼는 반면, 光華系에서는 오음영가와 무도를 통한 수련 이외에 念佛·七星呪文 등 각종 주문과 기도를 통한 祈祝에도 비중을 두고 중요시 한다.

일부계는 1878년 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주로 連山·公州 등 충청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반면, 광화계는 1879년에 전라도 용담 대불리에서 五方佛教라는 이름을 내걸고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주로 茂朱·龍潭·鎭安 등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져 신자들을 확보해 나갔다. 五方佛教란 오음주가 오행의 이치에 통하는 것과 같이 미륵불이 오행의 이치에 통하는 佛이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다. 五行은 五方의 理를 담고 있으므로

佛에도 五方佛이 있고 이 五方佛의 중앙을 맡은 主佛이 彌勒佛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당시 동학교단은 연담에서 비롯된 두 계통의 교단을 모두 남학이라고 불렀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계는 자신을 남학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오방불교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광화계만이 스스로를 남학이라고 하였다.

1894년 북전 고부에서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농민전쟁이 시작되자 이들은 龍潭(현 鎭安郡朱川面) 大佛里에서 동학운동에 호응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다. 남학교단이 동학의 움직임을 지원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바 후천의 이상세계(龍華世界)를 위한 개혁운동으로 독자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동학교도들이 보국안민, 후천개벽의 기치를 내세우고 승승장구 충청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본 광화계 남학교단에서는 자신들이 동학과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후천개벽의 소망을 이루고 또 동학과 견줄 수 있는 명분을 위해서도 총질기하자는 주장이 주로 하급간부들로부터 제기되었고, 이러한 주장이 중심이 되어 朱川 앞 시내와 벌판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소집되었다. 이들은 동학당과 구별하는 뜻에서 黃袂子를 입고 五方旗 아래 출전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는 주천 앞 벌판에 모여든 만명이 넘는 남학교도들이 동학교도들이 부르는 敎歌에 가름하는 “南門열고 바라치니 계명산천 밝아온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대벌리까지 진출하면서 기세를 올렸다고 한다.

한편 남학의 문헌에 의하면, 이때 김광화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들은 동학운동이 常性을 잃은 난동이라고 지적하고 난세를 당해서는 오직 도덕을 닦고 안심하는 것만이 활로를 얻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학교도들의 행동을 극력 저지, 결국 해산시키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부와 하급간부, 또는 신도들 간의 갈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곧 지도부들이 관념적으로는 미륵불의 현신과 후천개벽을 주장하면서도 운동성이 결여된 상태였고 따라서 행동에 옮길 것을 주장하는 하급간부, 또는 일반신도 가운데 진보적인 자들과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따라서 운동은 주로 하급간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결국 지도부의 방해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학운동이 비록 운동추진과정에서 해산했지만 당시의 관군, 일본군 연합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동학당 못지 않게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되었다. 때문에 1895년 봄 김광화를 포함한 간부 8명이 관군에게 체포되어 鎭州에서 처형 당하였으며, 하급간부와 일반 신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다.

각지로 흩어진 하급 간부들과 일반신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적은 현재까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제주도 역사문헌에서 그들 일부의 행적을 찾을 수 있다. 간부인 방성칠, 강벽곡, 정산마를 포함해 남학교도 수백명이 갑오년 경에 제주도로 들어와 당시 화전 개간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대정군 광천리 일대에 정착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다른 화전민들과 섞여 살았는지, 아니면 그들끼리의 독립된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들은 이 화전민으로 정착하여 화전정착을 통해 자신들의 생업을 찾고 생활하면서 자신들 고유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수련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金錫翼의 《耽羅紀年》에 “……潛懷不軌，蠱惑民心者久矣”라 기록된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신들 나름의 종교생활을 하는 동시에 주위의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포교활동도 조심스럽게 했다고 볼 수 있다.

Ⅳ. 민란의 전개과정

1. 집단등소(等訴) : 2월 7일 狀頭 房星七과 光淸里 일대 村民 수백명이 濟州牧 官庭에 물려와 訴狀을 제출하였다. 내용은 火田稅와 馬場稅, 戶布, 還上의 지나친 過擗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牧使 李秉輝가 시정해 주기로 약속하자, 해산하였다. 그러나 그 뒤 목사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대신에, 오히려 화전민들의 장두인 방성칠을 잡아들여 등소를 묵살하려고 토착 양반들의 집단 거주지인 朝天浦에서 비밀리에 狀丁 60여명을 모았다. 이 사실을 房星七을 포함한 大靜火田民들이 알게 되면서 민란으로 확대되어 갔다.

2. 민란 1단계 : 민란은 남학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남학교의 간부인 房星七·姜辟穀·鄭先(山?)馬 3명이 狀頭가 되고, 남학교들이 親軍을 구성하여 핵심세력을 형성하면서, 三郡에 通文을 돌려 每戶 各 1丁씩 참

가하게 하였다. 모두 머리에 白巾을 쓰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특히 親軍은 모두 黃氈笠을 쓰고 南字를 써서 몸에 붙이고 있었다.

2월 28일 이들은 三隊로 나뉘어 제주성을 향하여 진군하여 성밖에서 목사에게 최후통첩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날 入城하였다. 목사 이병휘와 1896년 민란 때 민란을 진압했던 대정군수 蔡龜錫을 구타하여 성밖으로 쫓아냈고, 吏書들의 일부가 맞아 죽고 일부도 도망하였다. 성을 점거한 민중들은 관안을 부수고 公文書·印章 등을 탈취하는 한편, 觀德亭 뜰에 모여 탐관오리들의 비행을 성토했다.

3. 민란 2단계 : 남학당 지도부는 3월 2일 “제주·대정·정의 3군수를 혁파하고, 還上를 절반으로 줄인다” 등의 내용을 담은 榜을 써붙여 민란의 성과를 알린 다음, 단순한 조세 저항의 차원을 넘어서서 독립국가 건설을 시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당시 방성질이 제시했던 독립국가 건설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는 우선 당시 한말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그것이 조선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국운이 쇠퇴하는 말세라고 이해하고 새로운 왕조의 도래를 예언한 鄭監錄類의 각종 秘記에 바탕을 둔 민간예언사상에 따라 민란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房曰, 濟州房星分野 吾姓房 與之上符 且秘記有房杜之將 亦與五姓相符 此非天耶 今國運已衰 眞人當出於海島 此機 不可失也, 且濟州謫客之多 未有如今日 文武俱修 此天贊吾事也 今日俄相爭 朝廷多事 未暇派兵, 雖來 不足畏也”(金允植)

1) 제주섬이 임금이 솟아날 房星분야라는 天文地理說을 자신의 姓과 연결시키고,

2) 眞人이 死島에서 나타난다는 鄭監錄說과 정도령과 함께 있을 房杜之將과 자신을 동일시 한다음 이들 무장관 함께 적객들이 있으므로 가히 문무를 겸비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좋은 기회라 하였다.

3)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정부가 민란을 진압할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적으며, 혹 보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세 조건을 결합시켜 과도한 조세부담과 진상물 마련, 탐관오리에게 시달려온 농민들의 바램, 곧 진상과 세금, 부역이 없는 이상 낙원을 세워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전통적인 민중종교사상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방성질을 중심으로 하는 남학당 지도부는 각 마을에 진령을 보내 도내의 모든 배를 물으로 끌어 올려 묶어 놓아 육지와와의 연락을 막고 도망간 이 서배들을 수색하는 한편, 謫客중에서 우선 젊은층인 金洛榮과 崔亨(永?)淳을 끌어들이면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지도부는 房屋七·姜辟穀·鄭山馬와 金洛榮·崔永淳으로 구성하고, 남학당으로만 구성된 御南軍을 內陣으로 삼아 무기고서 창검을 꺼내어 무장을 시킨 다음, 핵심부대로서 城內를 장악하게 하였다. 각 고을에서 모였던 畝民들 가운데 2천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낸 다음, 남은 2천명을 金洛榮·崔永淳을 각각 左右大將으로 삼아 천명씩 배치하여 外陣을 구성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발견하자 5일 성내에 있는 다른 謫客들과 토착양반 세력 일부가 朝天으로 도망하여 朝天의 토착양반 세력들(金氏家)과 연합하여 反軍을 구성하였다. 金應斌을 大將으로 삼고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朝天新村里民을 약 1,000여명 모았는데, 이들은 싸울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성칠 등 남학당 지도부는 토착양반세력의 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리 심각한 위협세력으로는 보지 않았으며, 謫客은 자신들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협조가능한 세력으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천에서 이들이 연합하여 反軍을 형성한다는 소식을 듣자 선제공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학당이 조천으로 막상 공격해 들어가자 反軍은 별다른 싸움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고, 조천 일대의 양반촌은 대규모 피해를 입고 말았다.

4. 민란 3단계 : 房屋七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는 장기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약 일주일 동안 남학당과 민중들은 성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성벽에 돌을 수만개를 갖다 놓는 한편, 무기를 보수하면서 서울에서 군병을 파견했을 경우의 전투에 대비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12일경부터 방성칠이 최우대장 김낙영, 최영순과 함께 산포지에서 일본배를

탐승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날씨 때문에 여러 차례 실패한다. 배를 타고 나가는 공개적인 이유는 일단 독립국가 건설을 포기하고 상경하여 직접 陳疏를 올리는 것이었다. 이때 일본에의 복속설(조선왕조에 맞서 싸우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대신 일본에 부속을 청하여 자치를 하려는 것이라는 설)이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점차 민중들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남학당과 일반 대중들 사이의 간격이 벌어짐.

5. 2차 反軍에 의한 민란의 실패 : 적객들과 성내토착 양반세력들이 전 정 의현감 洪在晉 등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다시 反軍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李容鎬를 통해 김낙영·최영순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면서 전열을 정비한 反軍은 13일 房星七 등 남학당 지도부와 御南軍이 대부분 산지포에 나가 성비위둔 사이에 성을 장악하였다. 반군이 성을 장악하고 김낙영, 최영순이 성안으로 도망가 반군에 합세해 버리자, 사기가 떨어진 방성철이 이끄는 남학당은 결국 주성 4리밖 破軍峯 및 마을인 貴里로 퇴각하였다가, 뒤쫓아온 반군에 의해 궤멸되고 말았다.

V. 민란의 구조와 성격

1. 1898년 초 等所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민란들과 같은 조세저항 운동을 거쳐, 조선왕조 자체를 부정하는 독립국가운동으로까지 발전했던 민란은 내부적인 갈등과 반군(유배인 적객들과 양반 토호세력)에 의해 한달여 만에 진압당하고 말았다.

2. 민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던 세력은 남학당이라는 종교조직이었다. 남학당을 종래에는 동학의 일파, 또는 동학의 간당 정도로 생각해 왔는데, 이는 막연한 추측이었다.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남학교단이 갑오년 농민전쟁 당시 동학교단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운동을 전개하다가 간부들이 체포되고 하급간부들과 신도들이 흩어졌는데, 방성철, 강벽곡, 정산마 등은 당시 남학교단의 하급간부들이었고 이들이 남학교도의 일부를 이끌고 제주도로 이주해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이주민들은 화진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각 지역 도민들이 모여드는 대정현 일대의 화전경작지대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종교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란의 주체세력으로 활동한 남학당의 교도들이 모두 외지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김윤식의 기록에는 모두 외지인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기록들에서 나타나듯이 방성칠이 담력이 크고 山祭를 이십년이나 지냈으며 강벽곡, 정산마와 함께 모두 80노인이면서도 術數를 잘하는 異人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주위에 교리를 포교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육지로부터 입도한 남학교도들과 제주 도민으로서 새로이 남학교도가 된 사람들이 모두 합쳐 남학당을 구성한 것으로 추정하며, 나중에 전개과정에서 재구성된 御南軍은 모두 외지로부터 들어온 남학교도로 보려고 한다.

3. 민란이 남학당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그들의 운동목표가 처음부터 종교적인 이상국가 건설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직접적인 것은 그들이 생활하면서 실제로 부딪치고 있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욕구였으며, 이 욕구는 화전생활을 하던 남학교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주도 주민들의 공통의 욕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조세저항운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때 이미 입도 전부터 남학운동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왕조정권에 저항해 본 경험을 지니고 있던 남학교도들이 자신들의 조직력을 활용하여 민란의 주체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은 남학당이었지만, 동시에 이들 운동의 대부분의 참가세력이며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농민대중이고 그들이 애너지였음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선조대의 文忠基亂과 순조대의 梁濟海亂과 비교해 보면 위의 두 난은 모두 거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실패하였으며, 민중적 기반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방성칠난은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았으며 실제로 운동으로 발전시킨 한층 조직화된 형태였다. 그런데 이 운동들을 제주도민들의 독립감정, 분리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특유의 운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운동들이 제주도민들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운동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육지부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제주도도 이상왕국을 세울 수 있는 섬으로 지목하여 이곳으로 들어와 제주도 유생들, 또는 민중들과 협력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제주도 유생들 중에서 이에 호응하는 자들이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외지인이 이곳에 들어와 이상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계기가 훨씬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주의적 전통은 옛날 탐라국 시절을 태평시절로 보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형상화된 운동이라는 성격보다는 오히려 정감록 등 각종 비기에 의한 예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몰락 지식인들, 또는 종교인들의 열망이 형상화되어 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평가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왕국 사상은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측면보다는 복고주의적인 측면을 훨씬 강하게 띠고 있다 하겠다.

5. 다음 민란 과정에서의 적객의 위치를 검토하려면 먼저 방성질이 이끄는 남학당의 육지인들과 제주도 농민들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관계가 깊은 연대의식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민란의 초기 단계에서 조세수취구조를 문제삼았을 때는 공동의 목표를 놓고 대처하고 있었으므로 육지인들과 원주민들이 매우 밀착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목사를 내쫓고 색리들을 처단한 이후에는 양자 사이에 금이가기 시작하였다. 남학당 지도부가 적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도부가 양반층의 신분적 성격, 한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독립국가로 발전하려 할때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 자신들과 제주도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밀착되지 못한데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작용하여 적객을 파트너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들을 자신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완충지대로 설정한 데서 까닭을 찾을 수 있겠다. 결국 이 때문에 지도부 내부가 쉽게 교란되었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6. 민란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무력하게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유 1: 조세저항운동에서는 일반 농민들의 호응이 매우 컸으나, 일단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 독립국가 수립운동으로 발전하면서부터는 농민들과 남학당의 간격이 벌어져 갔고 이 중간에 적객들이 끼어들면서 남학당 지도부가 교란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농민들은 다만 조세수취구조를 정비해줄 것을 바라며 신임 목사를 요구하는 수준이었지 왕조에 대한 정면 부정의 의도하거나 바랬던 정도의 목표는 구체화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유 2: 일본 복속설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컸을 것이다. 일본 복속설을 퍼뜨림으로써 남학당 내부를 교란시키고 일반 농민과 남학당의 연결을 갈라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일본인들, 특히 제주도에서 들어와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어부들에 대해 일반 대중들은 결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강창일의 지적에 따르면 일본 배를 민당이 침몰시킬 정도로 적대적이었다고 한다. 일본 어부들의 배를 타고 일본으로 복속을 청하려고 방성칠이 과연 가려고 했을까?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배를 탔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간다.

이유 3: 제주도 도착 지배층과 적객들의 연합작전이 주요했다. 위의 일본 복속설로 일반 민중들의 남학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반군을 모집,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었고, 여기에 적시에 양반 지배층들 간의 결속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점이다.

관련자료 및 연구

1. 南 學

李康五, “舊韓末 南學의 發生과 그 性格에 關하여”, 《全羅文化研究》創刊號, 全北郷土文化研究會, 1979.

李康五, “南學에 關한 小考”, 《韓國文化人類學》第10輯, 1978.

李正浩, 《正易研究》

李正浩, 《正易과 一夫》亞細亞文化社, 1985.

李能和, 《朝鮮道敎史》李鍾股 譯注, 普成文化社, 1981.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4.

《正易》, 正經學會, 1966.

《光華先生集》，《光華金處士法言錄》

《金岡錄》，《金剛佛教淵源錄》

2. 房星七亂

金奉鉉，《濟州島 歷史誌》，大阪，1960.

金宗業，《耽羅文化社》，조약돌，濟州，1986.

姜昌一，“1901年の 濟州島民亂에 대하여—韓末天主教의 性格과 關連해서

玄基榮，《변방에 우짚는 새》창작과 비평사，1983.

金允植，《續陰晴史》

黃 弦，《梅泉野錄》

金錫翼，《耽羅紀年》

《濟州犯罪人名簿》(규장각본)

《內部來文》(규장각본)

《高宗實錄》，《日省錄》